

‘총상금 15억원’ 제네시스 챔피언십 오는 8일 개막한다

11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서 120명 선수들 승부겨뤄

최장 코스길이 등 난도 높은 코스 마련...무관중 경기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2020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개최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 상금인 총 15억 원(우승상금 3억원)과 ▲제네시스 GV80 ▲미국에서 열리는 ‘2021 제네시스 인비테이션’, ‘2020 더 CJ컵@새도우크릭’ 출전권 등의 혜택을 갖고 120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겨룬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국내 남자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7년부터 개최해온 대회로 최장 코스 길이 등 난도 높은 코스가 마련됐으며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또한 8번홀, 13번홀, 17번홀에 최초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 제네시스 G70, G80, GV80로 부상으로 제공한다.

우승자와 17번홀 첫번째 홀인원 선수에게 부상으로 제공되는 GV80는 지난 1월 출시

한 제네시스 최초 후륜구동 럭셔리 플래그십 SUV다. GV80는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완벽하게 담아낸 외관 ▲능동형 노면소음 저감 기술, 인체공학적인 시트 시스템인 에르고 모션(Ergo motion) 시트 등으로 안락한 실내 공간 등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선수와 갤러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구축했다. ▲공식 호텔 내 선수 전용 동선, 공간 제공 ▲경기전 출전 선수 전원 코로나19 검사 지원 ▲모든 공간에 발열 체크, 방역 게이트 운영 ▲매일 클럽하우스 내부 소독 및 선수, 관계자, 미디어 동선 분리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에는 국내 최고의 대회에 걸맞은 주요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2019 제네시스 포인트 대상 문경준, 2019 제네시스 상금왕 이수민, PGA 메이저 타이틀 홀더인 양용은 등 KPGA 베테랑 선수들과 더불어 올 시즌 맹활약으로 투어의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젊은 피 김한별, 김성현, 김민규 등이 대거 참가한다. 또한 남자 골프의 미래가 될 아마추어 최강 조우영과 영건스 매치 플레이 우승자 고교생 김근우가 참가해 프로 대회의 높은 벽에 도전한다.

제네시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회 전야제 ‘플레이어스 디너 행사’를 대신해, 미쉐린 스타 셰프가 만든 친환경, 보양 콘셉트의 도시락을 전달해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올해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언택트 갤러리를 위한 중계 방송을 강화할 예정이다.

매 라운드를 6시간씩 생중계하고, 18개 홀을 전부 중계 편성에 다양한 선수들의 플레이를 시청자가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일부 라운드, 홀에서 볼 궤적 추적 시스템과 4D 리플레이 장비를 활용해 더욱 생생한 모습을 전달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하는 ‘2020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국내 최고의 대회는 물론 가장 안전한 대회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올해는 대회장 방문이 어렵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한국 남자 골프 투어 사상 최초로 투어 포인트 상금 제도인 제네시스 포



인트’를 도입했으며, 2016년부터 KPGA 코리아투어를 후원해 한국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5월 후원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장해 앞으로 4년간 총 16억원 규모의 후원금을 전달한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상반기 투어 개막이 지연되었던 어려운 상황에서 제네시스는 ▲스킨스게임 개최 후원 ▲‘제네시스 포인트’ 보너스 상금 중 일부 선지급 등을 통해 침체된 국

내 남자 골프 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밖에도 미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션’을 2017년부터 후원하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PGA투어 ‘더 CJ컵’도 공식 후원하고 있다.

뉴스



2020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에 등극한 최성환. (사진 = 대한씨름협회 제공)

최성환, 추석장사씨름대회서 통산 9번째 한라장사

영암군민속씨름단 소속...12일 입대 전 마지막 대회 우승

최성환(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0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최성환은 3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스포츠포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0 추석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6전 3선승제)에서 이주용(수원시청)을 3-0으로 물리쳤다.

오는 12일 입대하는 최성환은 입대 전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개인 통산 9번째 한라장사다. 올해에는 설날대회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이다.

최성환은 허리 부상이 있었음에도 16강부터 한 판도 내주지 않으며 완벽한 우승을 일궜다. 그는 8강에서 김상현(문경새재씨름단)을 2-0으로, 4강에서 같은 팀 후배 오창목을 2-0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최성환은 결승에서도 완승을 거뒀다.

첫판에서 잡채기에 이은 들배지기로 승리를 가져왔고, 두 번째 판에서도 자신의 주특기 기술인 들배지기로 승리를 따냈다.

세 번째 판에서는 이주용을 순식간에 들어 올려 뒤집기로 마무리, 우승을 확정했다.

최성환은 “올해 허리 부상 때문에 힘들어서 대회도 잘 못나가고 훈련도 힘들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들면 감동님이 따로 훈련 일정을 만들어서 훈련을 도와주셨다.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프로배구 오는 17일 막으른다...11월1일까지 주중 낮 경기

남자부 팀장 36경기·여자부 팀당 30경기 치러

프로배구 새 시즌이 17일 막을 올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4일 2020~2021 V-리그 경기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2020~2021 V-리그 개막전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남자부 경기다.

6라운드로 치러지는 정규리그는 남자부 7개 팀이 팀당 36경기, 총 126경기를 소화한다. 여자부 6개 팀은 팀당 30경기, 총 90경기를 진행한다.

포스트시즌은 남자부 준플레이오프가 실시될 경우 2021년 3월19일을 시작된다. 챔피언 결정전은 5전3승제로 3월26일부터 4월4일까지 열린다.

남자부는 월요일, 여자부는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경기를 갖는다. 주말에는 남자부 오후 2시, 여자부는 오후 4시에 경기를 시작한다.

주중에는 오후 7시 경기가 열린다. 다만 11월1일까지의 1라운드 경기들은 프로야구 정규리그 편성관계로 남녀부 모두 주중에는 오후 3시30분, 주말에는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OVO는 팬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비롯하여 경기 상세 페이지 검색 강화 및 일정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을 통해 V-리그에 대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KOVO는 V-리그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이강인, 발렌시아 떠나나

스페인 언론 “재계약 의구심”...프랑스·독일·이탈리아 일부 관심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발렌시아)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매체 ‘슈페르데포르테’는 3일(한국시간)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재계약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 클럽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발렌시아를 떠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계약이 2022년 6월에 끝난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적설이 불거졌으나 새로운 하비 그라시아 감독 체제에서 잔류를 택했고, 입지를 탄탄히 할 것으로 보였다.

레반테와의 개막전에 선발로 나서 도움 2개를 기록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셀타 비고와 2라운드에서 전반 45분만 뛰었고, 우에스카와 3라운드에선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 5분가량 소화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선 선발 출전해 70분

을 뛰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은 아직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클럽 중 일부가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전적인 문제보단 들쭉날쭉한 출전 시간과 선수단 운영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프리키 키커를 두고 동료와 언쟁을 벌이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흐르는 기류도 이번 보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슈페르데포르테’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로 떠난 페란 토레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강인도 이처럼 재계약을 거부하고 발렌시아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후반 교체로 나왔지만, 팀 패배를 막진 못했다. (캡처=발렌시아 홈페이지)

‘이강인 교체출전’ 발렌시아, 0-2 패배

레알 베티스전 후반 교체로 나왔지만, 공격포인트 실패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19)이 후반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팀 패배를 막진 못했다.

이강인은 4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라리가 5라운드 레알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투입됐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0-1로 뒤진 후반 11분 제이슨과 교체돼 투입돼 약 35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발렌시아는 전반 19분 베티스 미드필더 세르히오 카날레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데 이어 후반 29분 크리스티안 테요에게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다.

지난 라운드에서 레알 소시에다드를 잡고 2경기 무승(1무1패) 사슬을 끊었던 발렌시아는 다시 승점을 잃었다.

이로써 2승1무2패(승점7)를 기록, 선두권 경쟁에서 한 발 밀려졌다.

뉴스